

정기명 여수시장, 중국서 심박람회 참가단 유치



정기명 여수시장(가운데)이 중국 리수이시 인민정부 주화평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고 리수이시 대표단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웨이하이·리수이·샤오싱 등 자매·우호도시 3곳 방문 한인회 대상 설명회·시장 면담…참가협약 체결 논의

정기명 여수시장(가운데)이 2일(부)부터 7일까지 중국 자매·우호도시 웨이하이, 리수이, 샤오싱 3곳을 방문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단 유치와 교류 협력 확대에 나선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의 이번 방문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 세계 30개국 300만명 방문, 외국인 9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자매·우호도시가 가장 많은 중국을 중심으로 참가단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첫번째 일정으로 인구 290만여명의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한인회와 여행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등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005년부터 활발히 교류 중인 산둥성의 리수이시에서는 주린선 리수이시장과 면담을 갖고 섬박람회 기간 시 대표단 참가와 협력 강화를 요청하며 필요 시 참가 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우호도시 샤오싱시를 방문해 우당편 샤오싱시장과 외교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리수이시와 함께 시 대표단 참가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중국 자매·우호도

시 방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제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참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리 여수시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9월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 섬박람회를 홍보하고 리수이시 주화평 부시장을 초청해 참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국보 12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복원

3년간 연구·보존처리 진행…5일 복원 기념식

국보 12호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3년간의 손상 부재 보존처리를 끝내고 원래 자리인 화엄사 각황전 앞 자리에 세워졌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화엄사(주지 우석스님)는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부재 안정성 등이 요구돼 지난 2023년 5월부터 부분해체 보수작업을 벌여 왔는데, 3년여간의 보수공사를 끝내고 본래 자리인 각황전 앞으로 옮겨와 세운 뒤 5일 오후 1시 30분 현지에서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화엄사를 1300여년이나 밝혀온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높이 6.4m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석등은 지난 1961년, 1986년, 2009년 3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했다.

첫 번째 보수는 1961년 기초를 콘크리트로 다졌한 뒤 전체해체 보수를 실시했고, 두 번째는 1986년 간주석 박리로 떨어져 나간 부분과 육개석 떨어져

나간 부분을 수지 처리하거나 접합복원했다. 세 번째는 2009년 건식과 습식세척을 사용해 전체 세척을 실시했다.

보존 처리작업을 실시한 문화유산과학센터는 3차원(3D) 스캐닝과 구조 모델링을 통해 손상 부위의 형태와 원인을 정밀 분석해 부재 표면에 남은 연소 흔적을 확인, 티타늄 보강봉을 삽입해 내구성과 강도를 확보했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3년간의 연구와 보존처리 끝에 석등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손상과 구조적 불안정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으며, 내년에 석등의 보존처리와 복원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엄사 석등은 통일신라 현언왕 4년(860년)에서 경문왕 13년(873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활짝 핀 연꽃조각의 소박미와 화사석, 지붕돌 등에서 보여주는 웅건한 조각미를 간직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각황전의 위용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높이 6.4m의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고흥, 국내 최고 여행지 ‘우뚝’

2025 SRT 어워드 2년 연속 대상 수상

고흥군이 2025년 SRT 어워드 ‘국내 최고의 여행지’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2025 SRT 어워드 국내 최고의 여행지 10개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

예를 안으며 고흥군이 지난 뛰어난 관광 경쟁력과 매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번 어워드는 1만2060명의 독자 투표와 여행자가·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홍보 자료 활용성 평가 등을 종합해 수상 도시를 선정했다.

특히 고흥군은 지난 SRT 매거진 10월호에서 ‘고흥, 유자 향에 물든 가을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제5회 고흥유자축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고흥 유자의 우수성과 지역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위상도 빛났다. 나로우주센터와 누리호 발사, 북동항 드론쇼 등 첨단 과학 관광지를 알리며 미래지향적 관광 자원으로 큰 주목을 받

았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장여거리 등 자연과 힐링 관광지도 함께 소개해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우주항공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곳임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고흥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보성군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발을 뒀다.

2일 보성군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2025년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로컬푸드 유통단계의 안전성을 분석할 전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보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유통 구조의 다양화와 소비자 요구 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첨단 분석장비 확충과 실험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잔류

농약 다성분 분석장비(LC-MS/MS) 등 정밀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시료 전처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간 검사 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약 150% 향상할 계획이다.

또 분석실 공간 재배치와 환경 개선으로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확대, 농업인 대상 잔류농약 저감 기술지원 등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확충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곡성 국악 한마당 ‘명무 한진옥의 춤과 예술’

6일 곡성국악전수관서

곡성군은 오는 6일 오후 2시 옥파면에 위치한 곡성국악전수관에서 곡성 국악 한마당 ‘명무 한진옥의 춤과 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4일까지 사전에 곡성국악전수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공연은 한진옥 선생의 예술세계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막을 연다. 영상에는 한진

옥 선생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선생이 생애를 보냈던 옥파면의 모습이 담겨 있어 진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명무 한진옥은 곡성 옥파 출신이며 명창 장판개에게 입문해 소리를 배우고 명무 이장선, 신갑도 등 당대의 저명한 예인들에게 승무, 바라춤, 검무, 범패무 등을 배웠다.

곡성 국악 한마당은 국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역사 속에 잊혀가는 곡성의 국악 명인들을 재조명하는 자리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국악전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



전남도 민간정원 제1호로 지정된 고흥 속선.